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결산
-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IV. 이벤트 및 행사
- V. 시상
- VI. 아시아필름마켓(AFM) 결산
-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 VII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 IX.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포럼(BIFF Conference & Forum) 결산

1. 개요

1. 기본 개요

- 기간: 2013년 10월 3일(목) ~ 12일(토)
- 70개국 299편 상영
- 상영관: 7개 극장 35개관(마켓과 비공식 상영작 상영관 제외)
 - ✓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동서대학교 소향 뮤지컬씨어터
 - ✓ 해운대: 메가박스 해운대
 - ✓ 남포동: 메가박스 부산극장

2. 총 관객수: 217,865명

3.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 94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40편

4. 아시아필름마켓

- 세일즈부스: 총 32개국, 198개 업체, 92개 부스(BIFCOM 포함)
- 총 마켓 스크리닝 수: 총 16개국, 49개 업체, 87편, 100회 상영(마켓 프리미어 60편)
- 온라인 스크리닝: 261편(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선정작 190편 포함)

5. 아시아영화펀드(ACF)

- 타스콥스키 필름과의 펀드 협약 체결
- 알자지라 잉글리쉬(AJE)와 워크숍 프로젝트 공동 진행

6.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 펠로우: 15개국 23명
- 교장: 이창동(대한민국)
- 교감: 오석근(대한민국)
- 연출 지도교수: 아딧야 아사랏(태국)
- 촬영 지도교수: 쿠리타 토요미치(일본)

II. 결산

1. 새로운 작가 발굴과 독립영화의 수작 발견

카자흐스탄, 몽골 등 세계무대에서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의 재능 있는 감독과 작품들을 발굴하여 처음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영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다양한 독립영화 수작들을 발견하여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영화세계를 경험하려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 아시아필름마켓의 지속적 성장

신규 세일즈사, 바이어, APM 미팅의 증가로 행사장 트래픽이 대폭 증가하였고, 안정된 행사운영과 참가자의 높은 만족도를 얻음으로써 내실 있는 아시아필름마켓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3. 회고전, 특별전 프로그램의 성과

임권택감독 회고전은 71 편 상영이라는 유래 없는 (상영 가능한 모든 작품을 상영하는) 전작전을 선보여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고, '잊혀진 중앙아시아의 뉴웨이브 영화'는 중앙아시아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평가하는 기획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4. 2년 연속 영화관람객 수 20만 돌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한 순수 영화관람객수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20만명을 돌파하였다. 영화제 기간 중 태풍으로 인해 일부 행사가 차질을 빚고, 영화제 행사 시설들이 조기 철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꾸준히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었다.

5. BIFF Conference & Forum의 성공적 개최

BCF에서 확장하여 올해 새롭게 개최된 BIFF Conference & Forum(BC&F)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깊이 있는 모색을 통해 앞으로 영화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6. 관객 서비스의 대폭 확장과 성취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비프힐 로비를 관객라운지로 개방하고, 비프 테라스를 운영하는 등 관객 서비스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았다.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총 참석인원	9,991명
국내	3,423명
해외	751명
시네필	1,667명
마켓	1,272명
BC&F	616명
프레스	2,262명

*마켓과 포럼의 경우,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한 배지 발급자에 한함

IV. 이벤트 및 행사

- 마스터클래스 5회 / 핸드프린팅 3회
- 오픈토크 8회 / 야외무대인사 20회
- 아주담담 5회
- 야외무대공연 4회
- 짧은 영화, 긴 수다 3회
- 시네마투게더 9팀
- 관객과의 대화(GV) 295회
- 기자회견 총 13회
- 개별인터뷰 총 210회

V.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파스카> / 안선경(대한민국)

심사평:

색다른 사랑이야기를 친숙하면서도 사실 그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수상작: <리모트 콘트롤> / 비암바 사키아(몽골/독일)

심사평:

도시와 시골, 현실과 픽션 사이의 긴장감을 예리하게 그려냈습니다.

특별언급: <경유> / 한나 에스피아(필리핀)

심사평: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색다른 면모와 절망적인 정치적 상황에 갇힌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락산 바니에테마드(감독 / 이란)

- 심사위원: 아오야마 신지(감독 / 일본)

스캇 파운더스(버라이어티 수석평론가 / 미국)

샤를 테송(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집행위원장 / 프랑스)

2. 선재상

(아시아)수상작: <홀인원을 본 적 없는 캐디> / 요셉 앙기 노엔(인도네시아)

심사평:

아돌포 알릭스 주니어(심사위원 / 감독)

매우 정치적인 문제를 사랑과 골프에 대한 감독만의 독특하면서도 단순한 내러티브를 통해 독창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수상작: <여름방학> / 손태겸(대한민국)

심사평:

아돌포 알릭스 주니어(심사위원 / 감독)

등장인물들이 감히 상상 못하는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민감한 주제를 섬세하게 다뤄내었으며 관객이 방황한 십대들의 여정과 정신을 느낄 수 있게 전달하는 감독의 용감한 비전이 주목 할 만 합니다.

특별언급: <콩나물> / 윤가은(대한민국)

파스칼 포르(심사위원 / 프로듀서)

가족의 기초에 질문을 던지는 이 가슴 저미는 작품에서 김수안은 다재 다능한 연기력으로 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별언급: <하룻동안> / 베흐자드 아자디(이란)

정지우(심사위원 / 감독)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화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선재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아돌포 알릭스 주니어(감독 / 필리핀)

파스칼 포르(카날 플러스 프로듀서 / 프랑스)

정지우(감독 / 대한민국)

3. 비프메세나상

(아시아)수상작: <거리에서> / 다니엘 지브(인도네시아)

심사평:

<거리에서>는 마음 따뜻하고 구원하는 캐릭터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계급제도를 인간적이며 정중하고 감상에 치우치지 않으며 들여다 봅니다.

(한국)수상작: <논픽션 다이어리> / 정윤석(대한민국)

심사평:

<논픽션 다이어리>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매끄럽게 전달했기에 한국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수여합니다.

특별언급: <구름비-바람이 분다> / 조성봉(대한민국)

심사평:

탁월한 영상뿐만 아니라 신념을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시민들을 예리하게 그려냈습니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존 바달루(제작자 / 인도네시아)

라이언 해링턴(제작자 / 미국)

민환기(감독 / 대한민국)

4. BS 부산은행상

수상작: <흙> / 막시밀리언 홀트(스웨덴/아이슬란드)

5. KNN 관객상

수상작: <10 분> / 이용승(대한민국)

6. 피프्रेस(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작: <10 분> / 이용승(대한민국)

심사평:

10 분은 현대 기업 사회의 갈등을 심오한 엔딩장면과 제작상의 구현으로 인상 깊게 담아 냈습니다.

-심사위원: 안제이 베르너(폴란드), 타나카 치세코(일본)

캐롤린 바이드너(독일), 아이자드 굴(파키스탄)

서인숙(한국)

7. 넷팩(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수상작: <셔틀콕> / 이유빈(대한민국)

심사평:

막스 떼시에(심사위원 / 영화평론가 / 프랑스)

쉬운 스토리 전개와 뛰어난 촬영기법으로 두 소년의 대조적인 여정을 표현한 매우 독특한 로드무비입니다.

***넷팩(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막스 떼시에(영화평론가 / 프랑스)

굴나라 아비키예바(유라시아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카자흐스탄)

차민철(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대한민국)

8.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아버지의 정원> / 피터 리슈티(스위스)

심사평: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보여줬던 인형극, 도전적인 사운드, 실험적인 쇼트 구성 등 틀에 박히지 않은 여러 형식들이 가족이라는 인류보편적인 주제를 유틸 있게 재해석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신선함과 도전을 중점으로 보았던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이번 시상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한공주> / 이수진(대한민국), <셔틀콕> / 이유빈(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시민평론가상 수상작은 공동수상으로, <한공주>와 <셔틀콕>입니다.

<한공주>는 아픔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인물의 내밀한 감정 묘사가 탁월했으며, <셔틀콕>은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한 점이 훌륭했습니다. 두 영화는 한국영화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10. CGV 무비폴라쥬상

수상작: <한공주> / 이수진(대한민국)

심사평:

우리가 선정한 이 작품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자장 안에 있는 인물을 바라본 성찰의 깊이가 큰 작품으로 독립영화의 또 다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섬세하고 빼어난 연출력과 신인임에도 호소력 넘치는 연기를 발견하게 된 것 또한 이 영화를 지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답고 깊이 있게 성찰하며 '한국영화의 오늘과 비전'을 보여준 이 영화에 CGV 무비폴라쥬상을 드립니다.

V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세일즈부스: 총 32개국, 198개 업체, 92개 부스(BIFCOM 포함)
- 마켓 스크리닝: 16개국, 49개 업체, 87편, 100회 상영(마켓 프리미어 60편)
- 온라인 스크리닝: 총 261편(영화제 상영작 190편 포함)

APM

- 2013년 프로젝트 수: 총 30편
- 미팅 결과: 공식 미팅 횟수 총 532 회

시상결과

APM 프로젝트 시상

- 부산상: 김지운 <인랑> / 대한민국
- CJ 엔터테인먼트 어워드: 베니토 바티스타 <무지개 너머 사무엘> / 필리핀
- 롯데 어워드: 강이관 <옥택선 프로젝트> / 대한민국
- 팬스타크루즈 어워드: 이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 대한민국, 중국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에런 쉬안 <짐승의 끝> / 호주
- 테크니컬러 아시아 어워드: 왕 웨이 밉 <섹스어필> / 대만, 홍콩
- 아르떼상: 에드윈 <이국적인 풍경> /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독일
- 펀딩 21 어워드: 장률 <경주> / 대한민국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상: 웨인 왕 <여자가 잠든 사이> / 일본, 미국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1. 아시아영화펀드 2013년도 지원 내역

-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총 8편

(아시아프로젝트 4편, 한국 프로젝트 3편, AFA 프로젝트 1편), 각 1천만원 지원

-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총 5편

(아시아프로젝트 2편, 한국 프로젝트 3편), 후반작업 현물지원

- 다큐멘터리 AND 펀드: 총 15편

(아시아프로젝트 제작지원 9편, 한국프로젝트 제작지원 5편, 한국 다큐멘터리 배급지원 1편), 5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

- AND 프로그램: 10월 7일(월) ~ 9일(수)동안 다큐멘터리 AND펀드 수여 프로젝트 감독 12명과 다양한 지역 및 분야의 6명의 멘토들과 함께 강도 높은 1대1 프로젝트 클리닉을 비롯하여 마스터클래스, 네트워킹 미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2. 아시아영화펀드(ACF)의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확대

- 타스콥스키 필름과의 펀드 협약 체결

AND 프로그램 기간 중, 런던과 베를린 기반의 세일즈 및 프로덕션사인 타스콥스키 필름과의 'AND 타스콥스키 필름 아시아 탤런트 펀드'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 AND 펀드 수여작 중,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1편 선정하여 1년간 프로젝트 개발과 파이낸싱, 국제 배급에 대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 펀드의 첫 번째 수혜자는 중국의 조우 하오 감독의 <다통>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알자지라 잉글리쉬(AJE)와 워크숍 프로젝트 공동 진행

알자지라 잉글리쉬(AJE)와 AND가 공동으로 아시아 다큐멘터리 감독을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 '뷰파인더 아시아'를 7일간 진행했다 (9월 30일(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지난 7월, 참가 프로젝트 공모 안내부터 이번 워크숍 진행에

이르기까지 두 기관 간의 돈독한 협력을 통해 10개 프로젝트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뷰파인더 아시아'에 참여했다. 워크숍이 끝난 뒤 한달 여의 검토를 거친 후 6개의 프로젝트에 약 5천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3. AND 배급지원펀드 수상작

- 안녕?! 오케스트라 | 이철하(대한민국)

4.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 ACF 지원작 중 총 11편 상영

(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 5편)

※ 배급지원 1편 포함

(장편 극영화)

- 만찬 | 김동현(대한민국)
- 콘크리트 클라우드 | 리 차타메티쿰(태국)
- 안녕, 투이 | 김재한(대한민국)
- 셔틀콧 | 이유빈(대한민국)
- 못 | 서호빈(대한민국)
- 갈망아지 | 코롤도즈 초이주반지그(몽골)

(다큐멘터리)

- 구럼비 - 바람이 분다 | 조성봉(대한민국)
- 산다 | 김미례(대한민국)
- 거리에서 | 다니엘 지브(인도네시아)
- 싱가포르에게, 사랑을 담아 | 탄핀핀(싱가포르)
- 안녕?! 오케스트라 | 이철하(대한민국)

Ⅷ.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1. 기간: 2013 년 9 월 26 일(목) ~ 10 월 13 일(일) (18 일간)

2.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영화의전당, 아르피나유스호스텔 등

3. 참가자: 15 개국 23 명

4. 지도교수진

- 교장: 이창동(대한민국)
- 교감: 오석근(대한민국)
- 연출 지도 교수: 아딧야 아사랏(태국)
- 촬영 지도 교수: 쿠리타 토요미치(일본)

5. 프로그램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동행> Departure | HD | 10min
- <블랙미러: 꿈을 걷다> The Black Mirror | HD | 10min

② 전공워크숍 총 6 회(연출, 제작, 촬영, 미술, 사운드, 편집)

③ 교수진 시사 2 회(<시>, <마리는 행복해>)

④ 마스터클래스 2 회(교장 이창동, 리티판)

⑤ 특강 3 회(황우현(DI), 이무영(시나리오), BIFF 기술팀(DCP 제작))

⑥ 멘토링(시나리오 클리닉, 연출교수 멘토링, 촬영교수 멘토링)

6. 장학금 수여

① 동서대학교에서 펠로우 2 인에게 각각 현금 5 백만원 수여

② ㈜디엠라이트; 루모스에서 촬영전공자 2인에게 각각 LED 조명기 1대 수여

IX. BIFF Conference & Forum 결산

1. 기간: 2013년 10월 9일(수) ~ 11일(금)

- 본행사 : 10월 9일 ~ 11일, 기조강연, 세션, 특별세션(후원기관), 튜토리얼 등

2. 장소: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 및 중원홀

- 컨퍼런스: 그랜드볼룸A, 중원홀
- 포럼: 그랜드볼룸C

3. 참가규모

- 게스트 전체: 616명 (국내 545명, 해외 71명/ 컨퍼런스 305명, 포럼 311명)
- 유료참가자(배지구입자): 155명

4. 주제 및 프로그램

① 컨퍼런스

- 컨퍼런스: 무비, 미디어 그리고 마인드: 사회적 의식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고찰
(Movie, Media and Mind: Reflections upon Film as Societal Awareness)
- 세션 1: 영화와 디자인&융합
- 세션 2.: 영화와 인문학
- 세션 3: 영화 속의 인문과 테크놀로지(한국연구재단 후원)
- 세션 4: 영화와 공학
- 세션 5: 영화와 스포츠(가천대학교 후원)

② 포럼

- 세션 1: 중국의 무협영화, 그 동(動)과 정(靜)의 인문주의(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영화포럼)

- 세션 2: 중국영화와 인문주의 스펙트럼
- 세션 3: 영화, 영화제 담론(FFRN: Film Festival Research Network)
- 세션 4: 중국독립영화의 숨겨진 역사
- 세션 5: 영화배급의 법률문제(영산대학교)

5. 컨퍼런스 참여 및 후원기관

-가천대학교, 한국연구재단

6. 포럼 참여기관

-FFRN(Film Festival Research Network), 동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중국영화포럼,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센터